

농장의 화목 (和睦)



운 덕 영
(덕영 종돈장)

다람쥐 체바퀴 돌아가듯 반복된 생활속에 벌써 1년을 마감하는 11월이 도래하고 보니 앞으로 닥칠 흑한을 대비한 월동 준비와 일년을 마감하는 결산으로 각 농장은 몹시 분주하고 어수선한 나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달에는 사양과 동떨어진 문제인 농장 구성원들의 화목에 대해 외람되게 느낀점을 적어볼까 한다.

1966년도 이후 농장생활로 잔뼈가 굵은 내 경험과 농장주 및 관리인들과의 상담에서 각 농장마다 걸으론 나타나지 않는 주종간의 상호 불신 불만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사양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경영이기에 내자신도 이제 양돈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세로 여러 양돈가 제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란다

다.

돼지관리의 원천은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인, 즉 사람이다.

아무리 우수한 시설과 종돈, 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사람이 성의를 다해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농장 운영의 최대목표인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운영 하느냐 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관리인은 자기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일하는 척(?) 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성을 경영주와 관리인(종업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한 대안들을 나름대로 몇가지로 구분해서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관리인들을 가족같이 대한다.

가장 평범한 일이지만 이 평범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너무 주종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간격을 두어 많은 손실을 수반하는 것을 종종 보아오고 있다. 우선 이 간격의 벽을 깨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한다. 주인은 관리인을 친자식이나 동생 같이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으며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친부모나 형제같이 대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관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만이 농장이 화기애애하고 이에따라 자연적으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일례로 어떤 농장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그 해결 방안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대화를 나눠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회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권장했던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성적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생활을하며 농장주는 직원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관리인들은 이곳이 자기들이 가꾸고 지킬곳이라

는 사명감과 긍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2. 주인은 항상 손해보는 입장이 되라.

일제식민지 부터 6·25동란 등을 거치며 가난한나라, 개발도상국을 지나 이제 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50대 이상의 부자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먹지 않고 쓰지 않으며 종업원들에게 최저의 임금을 급여하여 부를 축적했지만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지금에 와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그분들의 사고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문명을 접한 50대 초반 이하 세대들은 쉽게 잘못을 깨닫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위해 과감한 모험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양돈업에 있어서도 30대와 40대들의 발전 속도는 괄목할만하다고 느껴진다. 주인된 입장에서 자기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가까운 주위에서 보면 비록 대기업 농장은 아니지만 중규모 정도에서 종업원들의 자녀학비, 가족들의 질병문제, 연간 상여금 등 놀랄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곳도 있다.

3. 철저한 성적제로 대우해 준다.

앞의 항목처럼 너무 대우만 잘해준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는 관리면과 생산면을 고려하여 맡은바 직분에 얼마만큼 충실하여 농장의 수익을 높였느냐에 따라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을 철저하게 차등지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잘한 사람에겐 더욱 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근무에 태만한 직원은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되며 쉽게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수있는 기회를 갖게 유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4. 관리자에게 농장운영권을 능력에 맞게 부

여하자.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나름대로 소신대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끔 해줘야하며 주인이 나를 이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잔소리와 꾸중은 적게하고 월말 결산과 보고로 함께 검토하며 새달의 계획을 세워 사료만 제외하고 다른 물품은 일괄구입 하여 체계있게 운영토록 하며 새로운 계획에는 동참을 시키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그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하게 함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학구적이고 연구적인 기회를 부여하자.

각종 기술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시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양관리에서 탈퇴시켜 타 농장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아직 내가 아는 것은 보잘것이 없고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어 발전적이 되게 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껴 한눈 팔 기회가 없어진다.

6. 적당한 휴식과 오락과 취미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로 자칫하면 삶에 대한 회의로 실의에 빠져 무기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한달에 1~2일 정도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배려해 주는 것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므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문제들이 농장의 관리에 대두되는 사항들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많은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심층분석하기로 한다.